

# 당정, 1월 중 쌀 20만t 시장격리 결정

민주 이원택 의원, “문 정부가 이뤄 놓은 쌀값 회복 성과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쌀 시장안정을 위해 2021년 쌀 20만톤이 1월 중 시장격리 된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김제·부안)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열어 2021년산 쌀 초과생산량 27만 톤 중 20만톤을 1월 중 시장격리하고, 초과생산량중 잔여 물량 7만 톤에 대해서는 추후 시장 상황, 민간 재고 등 여건을 보아하면서 추가



매입 시기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2,000톤으로 지난해 350만7,000톤 대비 10.7% 증가한 수치로 신곡 수요량 361만톤 대비 27만톤 초과 생산됐다. 이로 인해 지난 25일 산지쌀값은 5만 1,254원/20kg으로 지난 10월 5일 가격 5만1,603원에서 9.8% 하락했으며, 12월 들어서는 산지쌀값 하락 폭이 확대됐다는 것이다. 올해 작황에 따른 쌀 값 하락은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 전반적으로 기상여건이 좋았던 데다

쌀 재배면적도 73만2,477ha로 지난해 72만1,432ha보다 6,045ha(0.8%)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원택 의원은 지난 10월 농식품부 국정감사 당시 올해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8.8~10.3%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조속한 시장격리가 필요하다고 김현수 농식품 장관에게 강력 주장했으며, 청와대에도 관련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지난 11월에는 전북·전남 국회의원들과 쌀 공급과잉을 막기위한 시장격리조치를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했으며, 지난 8월에는 더

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선제적인 쌀 시장격리를 지속 촉구했다. 이원택 의원은 “쌀 초과 생산량 전량 수매가 안 돼 아쉽지만, 신속한 쌀 시장격리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어렵게 이루어 놓은 쌀값 회복 성과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 농민들이 근심·걱정 없이 농사지를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쌀 시장격리를 위해 함께 노력해준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인 이기호, 위성곤 서삼석, 김승남 맹성규, 어기구, 최인호, 윤재갑, 주철현 등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유호상 기자

## 도내 노후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결실’

김윤덕 의원, 도내 소재 LH 공공임대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2072가구·494억 확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 갑)이 추진한 전북 노후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결실을 맺었다. 김윤덕 의원은 28일, 전주평화단지 내 평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샘플하우스 개관식에 참석하고 노후 아파트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착수를 알렸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열린 개관식은 국토교통부와 LH 주관으로 LH 본사 주거자산관리처장, 오평근 도의원, 이남숙·송승용 전주시 의원, 주민 등이 참석해 사업 설명, 샘플하우스 견학 등이 이뤄졌다. 김 의원은 그동안 예산 확보 노력을 통해 올해 첫 사업으로 전주시 평화동 영구공공임대아파트를 비롯해 익산 부송, 군산 나운동, 등 도내 2072세대, 494억원의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었다. /유호상 기자



이번 노후 아파트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첫 샘플하우스를 시작으로 내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노후 아파트 주거공간은 단열을 위한 베란다 창호, 화장실 도배, 장판, 주방기구 교체 등 실내 모든 주거시설이 바뀐다. 시설개선에는 각 세대 당 2천만원에서 4천만원이 소요되며, 모든 비용은 국토부와 LH에서 부담한다. 시설개선 후 임대료도 기존과 같다. 김윤덕 의원은 “그동안 도내 영구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은 몇 십년이 지난 실내 공간에서 겨울이면 추위에 떨고 노인과 장애인,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했다”며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환경이 개선돼 어르신들과 우리 아이들 모두의 포근한 주거공간이 확보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첫 사업을 시작으로 사업이 계속되는 만큼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유호상 기자

# “30년 도민 희망고문, 종지부 찍으러 왔다”

정의 심상정 대선후보 새만금 개발 공약 발표 “사회적 경제특구로 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8일 전북을 찾아 지난 30여년간 전북도민의 희망고문이었다던 새만금사업의 종지부를 찍고자 왔다고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에 놓인 비상한 기후위기, 극심한 불평등, 누적된 차별을 해결할 지도자를 뽑는 대선이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모든 시민의 삶을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한 종합비전을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8일 전북도청 기자회견장을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심 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에 놓인 비상한 기후위기, 극심한 불평등, 누적된 차별을 해결할 지도자를 뽑는 대선이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모든 시민의 삶을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한 종합비전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첫 번째로 30년 동안 전북의 미래를 가로막아왔던 새만금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그동안 새만금에 13조원 가량이 투입됐다”면서 “이 돈을 아름다운 역사문화관광자원 개발에, 대중교통 확충에, 세계 최대 갯벌인 계화도갯벌 브랜드화에 썼다면 경제효과는 막대하고 영구적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그러면서 “새만금을 대한민국 그린뉴딜 해양 생태관광 중심지로 만들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되는 즉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매립사업의 완전중단과 새만금 해수유동 확대 등을 통해 새만금의 생태적 가치와 갯벌을 복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매립에 사용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이익을 RE100 산단

조성과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등으로 전환하고 새만금 사회적경제 특구 지정”을 약속하고 “새만금살리기공동행동과 이런 내용을 담은 9개항에 합의하는 정책협약식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새만금에 추진중인 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비판적이지 않다”는 확고한 입장을 드러냈다. 심 후보는 “현재 국내 16개 공항 중 14곳이 적자로 운영되고 세계적으로 공황을 겪는 추세”라며 “갯벌의 가치가 높은 새만금에 공항을 유지하는 것은 전북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아이টে이션을 봐야 하는 것으로 무책임한 제안”이라고 일축했다. 심 후보는 새만금 공약에 이어 전북문화 리부트로 전북을 주4일제 시대의 1일 관광중심으로 육성 계획도 밝혔다. 그는 “주4일제의 최대 수혜자는 코

로너9의 최대 피해자인 자영업자와 여행숙박업계 종사자들이 될 것”이라며 “지역 관광과 지역 자영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중대형 상용차의 98%를 생산하고 있는 전북에 대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북 상용차 산업의 녹색전환을 국가주도로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심상정 후보는 다가오는 대선에 대해 “무너만 다르고 속은 엇비슷한 양당 사이에서 갈등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준비된 미래와 확고한 비전을 가진 후보를 선택해주시길 바란다”며 “저 심상정이 전북도민 여러분과 함께 시민의 삶이 선진국이 나라 꼭 만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유호상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 도내 기초의회 소식

무주군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이행

무주군의회(의장 박찬주)가 내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을 앞두고 지난 27일 제289회 임시회를 개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등 후속 조치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 무주군의회에서 발의·의결된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자치법규안은 무주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복합관리를 비롯,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등 관련 조례 제·개정안 12건, 의회규칙안 8건 등 20건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등이 있다. 무주군의회는 이로써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는 인사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됐으며 주민들이 필요한 조례를 직접 제·개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또한 적기에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찬주 의장은 “자치법규 마련에 이어 개정 자치법규와 관련 조례의 시행에 철저지 대비, 책임성 있는 의회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의 진일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사업주 의무공시 사항에 근로자 세부현황 포함

윤준병 의원, ‘고용형태 관리 세분화법’ 대표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28일 우리나라의 고용 현실을 보다 면밀하고 정확하게 파악·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의무공시 사항에 세부적인 인력 통계사항을 포함하는 ‘고용형태 관리 세분화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고용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를 비롯해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등을 구분해 자세한 근로자 수를 매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 정년연장 등과 관

련된 국가 정책을 수립하기에는 현행법 규정이 미비해 고용 관련 통계를 좀 더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단순한 고용형태별 노동자 수뿐만 아니라 전체 일자리 총량, 신규취업자, 계속고용자와 같은 인력 통계를 파악하고 관리해 정부의 고용정책 효과를 현실에 더 가깝게 분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이 이번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사업주의 의무공시 사항에 고용형태별 근로자 수를 비롯해 연령별 신규취업자, 정년 퇴직자, 고용연장 노동자 등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항목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양정숙 오영환 김주영, 노웅래, 민형배, 김철민, 장철민, 서영교 이용민, 윤재갑 박 정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유호상 기자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